# "수좌 스님 뒷바라지, 우리 힘으로!"

## 선원수좌회 후원모임 '선주회' 7월 4일 창립 법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좌 스님들의 수행을 뒷바라지하는 재가불자모임 선주회(禪主會)가 첫발을 뗀다. 조계종 수좌 스님들의 결집체인 전국선원수좌회 부설 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대표이사 의정)는 재가불자모임인 선주회를 창립한다.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양평 용문사에서 열리는 창립법회서는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인 의정 스님(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의 법문과 조직 선포 등이 이뤄진다.

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수좌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간화선 대중화 및 세계화에 나서고 있으며, 2000여 수좌 스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취지에 공감해 3000여 재가불자들이 후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함께 수행을 하거나 선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등 적극적인 활동은 미미했다.

선주회는 선원수좌 스님들 후원하는 공식 조직으로 향후 월간 정기법회 및 수련회를 열고 선원 대중공양 및 후원, 생활참선 수행교육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선주회는 올해 3월 초 김한란 성신여대 교수와 정상철 강원전기 대표이사가 회장을 맡으며 구성됐으며, 6월 초 임원 위촉을 시작으로 조직화가 완료됐다.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아 실무를 진행한다.

정상철 공동회장은 "그동안 '禪' 회보를 통해 후원해주신 감사를 표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후원회를 조직하게 됐다"며 "수좌 스님들의 명법문을 청하고 수행 지도도 받으며, 후원회원이 모여 매월 법회와 순례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주회의 발족에 따라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진행 중인 각종 목적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가시화 되는 것은 문경 세계명상마을 불사다.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한국 선(禪) 전래 1200주년인 2021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수행마을로 문경 세계명상마을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선주회

**용문사서 창립법회 개최**
**3천 여 회원으로 구성돼**
**월법회 · 승보공양 전개**
**선수행 · 생활참선 교육**

1단계 불사로 2018년 7월 12일 웰컴센터와 기반시설 착공이 이뤄져 현재 막바지 작업에 이르렀으며, 새로 명상관과 숙소동, 교육관 등으로 이뤄진 2단계 불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선주회 발족과 함께 자부담금 마련 등 어려움이 해결돼 2021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불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진행 중인 수좌 스님들의 의료 지원 및 노후 생활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승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명상마을사업단장은 "종단에서 최근 승려 노후복지에 힘쓰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수행만 해오신 선방 수좌 스님들은 몸이 아프거나 노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진행 중인 수좌스님 지원사업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목표인 간화선 세계화에서도 선주회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를 표했다.

김한란 선주회 공동회장은 "앞으로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재가불자 수행열기도 진작시키기 위한 모임 등을 꾸준히 갖겠다"며 사부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031)772-9968

# 미래지향 첨단 3군 통합법당 가시화

##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 16일 백만원력불사 1억원 동참

**호국사 영외법당 불사 앞두고**
**혜자 스님 불사 첫 지정 기탁**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설명**
**최첨단 시설, 모연 시작 알려**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군법당 건립이 추진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결집 불사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불사기금은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건립을 위한 교구장 혜자 스님의 지정기탁으로 사실상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의 영외법당 불사계획 보고와 본격적인 불사 모연을 앞둔 행사 의미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군 복무를 해봐서 그 나이대의 젊은 청년들이 어떤 의지처가 필요한지 느꼈다. 계룡대 영외법당이 젊은 장병들의 의지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들 힘을 합쳐 군포교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혜자 스님을 비롯해 부교구장 성광스님, 성진 스님 등은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건립 추진현황을 세밀하게 보고했다.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은 최근 5000여 평의 부지가 13000여 평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을 새롭게 실시하고 설계 등을 일부 보강, 수정한 바 있다.

혜자 스님은 "계룡대는 우리 군의 중심으로 이 곳에는 그동안 교회와 성당이 최신시설로 있었다. 호국사 영외법당 완공시 우리 군에서 가장 장엄한 곳으로 자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법당과 교육동이 분리되며 총 사업비 111억에 3층 규모의 대웅전, 다목적홀 등 법당 건물과 150명이 수용가능한 교육관 건물로 지어진다. 법당은 좌식과 입식을 병행하여 시설이 들어서며 교육관은 온돌마루를 활용해 24객실로 구성된다. 군종교구는 7월 중 시공사 선정 후 8월 착공, 2021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 원행 스님은 "법당의 명칭 등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로비 등 설계도 꼼꼼하게 챙겨 불사를 원만하게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조직 · 회칙 대폭 개선…민주적 운영토대 확보

## 전국비구니회, 6월 12일 12대 출범 첫 정기 총회 분야별 10개 위원회 신설



전국비구니회는 6월12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가 12대 출범 후 첫 정기총회를 열고 분야별 위원회 신설,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 체계 구축, 회칙의 미비점에 대한 전폭적인 개정 등을 의결해 향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그동안 선거 때마다 논란을 빚어 온 회장 선출을 비롯한 각종 선거제도를 체계화 · 구체화한 별도의 선거법(안)을 논의했으며, 원로회의와 명사, 비구니종회의원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 · 신설해 향후 비구니 위상 강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6월12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12대 집행부 구성 이후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및 사업승인의 건 등을 시작으로 △회칙 제개정의 건 △선거법 제정 △원로 · 명사 추대의 건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본각 스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그동안 전국비구니회의 미비점으로 지적돼 온 운영회칙 및 각종 규정에 대한 제개정,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 등 조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핵심안건으로 다뤄졌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인사 · 포상 · 징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원로추대위원회 등 10개 분야의 제위원회를 신설키로 의결했다. 이는 일부 임원을 중심으로 한 주먹구구식 운영 및 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고 대민주주의 방식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비구니회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운영회칙도 감시와 견제기능을 확보하고 원칙에 맞는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폭 개정됐다. 대표적인 대목이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지방조직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한 세분화 · 구체화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었지만 명확한 원칙이나 세부규정이 없어 갈등을 빚었던 비구니종회의원 선출도 자격과 선출방식 등 항목을 구체화하고 활동, 역할 등을 회칙에 명시해 비구니 위상 제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로회의 및 명사 등 비구니 원로 스님에 대한 규정을 신설 · 개정해 비구니 위상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비구니회는 임기가 만료된 원로위원을 명예위원으로 모시기로 하고 원로위원 구성도 25인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또 원로의원과 명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명사는 원로위원 중에서 추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로 및 명사법계추대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선거법 제정의 건도 논의됐다. 선거법은 전국비구니회장,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날 총회에서 입법예고 후 추가 논의를 거쳐 2021년 정기총회 의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회장 본각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 지향점을 찾기 위해 비구니승가가 각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시대를 직시하는 참다운 결사운동을 청하고자 한다"며 "함께 배우고 실천하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 금산사 주지에 일원 스님 임명

##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선출 조계종, 17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에 일원 스님〈오른쪽 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17일 일원 스님에게 금산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성의를 다해 교구를 잘 이끌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며 "대강백이자 이치와 실무에 두루 밝으신 만큼 조실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과 화합하면서 교구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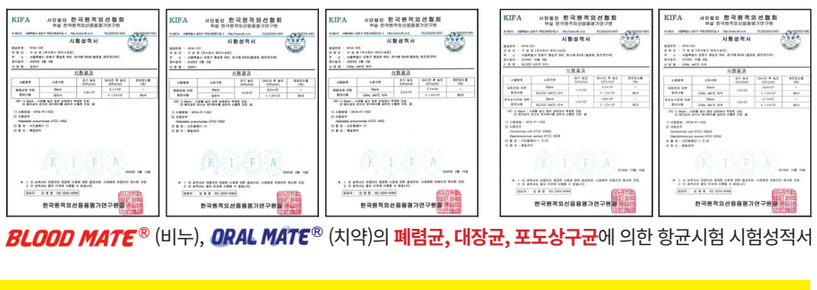
앞서 금산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화평)는 6월 16일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일원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세영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일원 스님은 "금산사 조실이신 월주 대종사의 원력을 받들어 대중들과 화합하며 교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임 주지 성우 스님이 완성한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를 활성화시키고 거점포교도량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1975년 수계(사미계)했으며, 봉암사 태고선원, 금산사 서래선원, 칠불사 운상선원, 불국사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학소암, 영화사, 학림사 주지 및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송지희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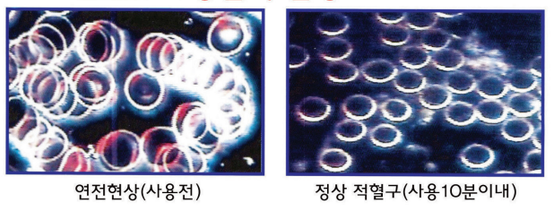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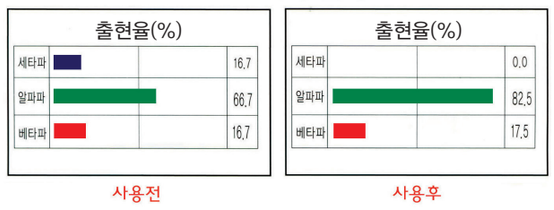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BLOOD MATE®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지고 다리에 쥐가 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 않아도 거품으로만 마사지해도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투명한 피부는 물론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의 효과가 있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 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 예방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 시에는 양치 후 먹으면 속이 빨리 편안해지고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 때에는 아픈 부위에 치약을 그대로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집니다. 팔과 다리에 피가 나는 정도의 상처에 치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덮어 주었는데 통증도 없고 3일이 되니 깨끗이 상처가 나아버린 체험을 했습니다.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저녁 식사 뒤 양치 후 삼켜버리면 입안의 세균이 없어짐은 물론, 구강부터 항문까지 건강해지고 매일 고질적인 구취까지 없어져 입안이 개운한 것이 특징입니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